

엔저, 국내산업 경쟁력에 치명타

LGRI, 수출기업 타격 본격화 ... 현대는 연말 달러당 120엔 전망

지금까지의 엔저 우려는 서곡에 불과하다는 연구기관들의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는 엔저 공습에 우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 효과는 퇴색하고, 수출 기업들은 본격적인 영업실적 악화에 시달릴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진단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26일 <환율변화 영향 기업실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서 엔저의 악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엔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 드라이브를 걸었던 2012년 3/4분기 이후 본격화했다.

이한득 연구위원은 “엔화약세가 2013년 들어 일본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국내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영업실적이 집계된 국내 수출기업 60개를 분석한 결과 매출 증가율이 2012년 3/4분기 2.5%에서 4/4분기 마이너스 1.6%, 2013년 1/4분기 마이너스 1.1%로 크게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수출기업 144사의 매출 증가율은 2012년 3/4분기 마이너스 1.0%에서 4/4분기 1.2%로 한국을 추월했으며 2013년 1/4분기 5.1%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도 한국은 2012년 3/4분기 4.2%, 4/4분기 1.0%, 2013년 1/4분기 2.2%로 엔저가 시작된 이후 부진했으나 일본은 5.2%, 4.1%, 5.0%로 고공비행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엔화가치의 하락폭이 지금까지 엔화약세 시기를 통틀어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엔화가치 급락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엔저가 시작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엔화는 달러당 78.2엔에서 100.9엔으로 가치가 22.5% 급락했다.

보고서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엔저가 앞으로 1년 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세대로라면 엔·달러 환율은 2013년 상반기 말 달러당 110엔, 연말 120엔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총수출은 2013년 연평균 엔화가 달러당 100엔일 때 5334억달러로 전년대비 2.6%, 110엔일 때 5202억달러로 5.2%, 120엔일 때 5080억달러로 7.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평균 엔화가 달러당 100엔을 기록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약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엔저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감소 전망은 최근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져올 성장률 제고 효과 0.3%포인트에 버금가 경기부양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고서는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는 국내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려 주식시장 위축으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7>